

‘종교’의 동의범주 ‘道’와 ‘教’의 차별성 검토*

김정필**

【목 차】

1. 서언
2. ‘道’와 ‘教’의 동의성 의미항목과 의미역
3. 형태소 ‘道’와 ‘教’의 어휘구조 비교분석
4. ‘道’와 ‘教’의 의미범주에 대한 도상화 분석
5. 결어

【초록】

한자 ‘道’와 ‘教’는 동의어에 속하지 않지만, ‘종교’의 의미범주를 가진 형태소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본문은 종교의미의 ‘道’와 ‘教’가 형태소로서 어휘를 구성하면서 나타나는 의미항목의 차이점에 대해, 다양한 어휘자료를 분석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道’는 본래 원형의미가 가지고 있던 추상적인 원리가 여전히 작용함으로써, ‘종교’의미를 나타낼 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행위나 실천으로 전이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教’ 또한 비록 ‘教理’나 ‘教法’ 등으로 표현될 때는 ‘道’의 의미범주에 근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상적 원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행위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일상적인 종교 활동에서 ‘宣教’와 ‘传道’가 혼용되어나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만약 원형의미를 근거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传道’는 교리의 전달에 초점이 있으며, ‘宣教’는 교세의 확장과 관련된 교도(教徒)들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별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종교, 도, 교, 형태소, 유의어

* 본문은 2018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道’와 ‘教’의 인지의미론적 분석”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히며, 당시 의견과 충고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jpkim21@gnu.ac.kr)

1. 서언

중국어의 특징은 중에서 동음어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적인 언어 활용에서는 ‘동의어’에 대한 변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언어학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동의어의 차별성을 고찰하고 있지만, 크게는 의미항목이 완전히 동일한 ‘완전동의어’와 대부분의 의미항목이 일치하고 일부분의 의미항목이 다른 ‘부분동의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분동의어’ 또한 일치 및 불일치의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분류의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완전동의어’ 또한 원소기호나 전문용어, 고유명사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일치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완전동의어가 아닌 ‘부분동의어’에 대해서도 언어교제 과정에서는 완전동의어처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고, 모국어 화자들도 이들 사이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다.

사실 언어사용에서 활용되는 어법기능이나 어휘의 형성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유의어 상호간의 의미항목이나 어휘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특징 및 어법기능상에서 미세한 차이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음절 어휘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중국어에서는 일상적인 언어교제에서는 동일한 형태소를 지닌 어휘들에서 ‘동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한자나 어휘 내부의 어휘항목이 동일한 경우에도 ‘동의성’을 가진 어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본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道’와 ‘教’는 동의어나 동의한자에 속하지 않지만, ‘종교’라는 의미항목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 ‘동의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의미항목의 하위범주에는 또 다른 소의미의 항목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하위범주의 다양한 의미항목은 또 다른 차별성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면, 무협소설이나 무협만화에 보면, 무림은 언제나 ‘正道’를 지향하는 세력과 ‘邪道’ 혹은 ‘魔道’로 불리는 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邪’ 혹은 ‘魔’의 집단에는 또 다른 세력인 ‘魔教’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正派’는 언제나 하나의 ‘무림맹’ 혹은 ‘정도련’ 등의 이름으로 그 세력이 결집되어 나타나는데 비해, 邪派무림은 ‘흑도(黑道)’ 혹은 ‘魔道’의 사도련(邪道联)과 ‘魔教’가 갈라져 ‘正道’무림과 싸우거나 심지어 같은 ‘魔’의 세력끼리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림맹의 ‘정도련(正道联)’과 대치되는 ‘사도련(邪道联)’은 세상에 드러난 세력으로 나타나지만, ‘마교(魔教)’는 대체로 행동하는 은둔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다. 만약 본문에서 응용하고자 하는 의미항의 차이를 통해 두 동의성 어휘를 변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협의 작가들은 왜 ‘邪派’세력을 ‘道’와 ‘教’라는 형태소를 구별하여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는 인지적 특징에 근거하여, 위의 예에서 보이는 이러한 활용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형태소의 구성방식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본문에서는 ‘道’와 ‘教’가 나타내는 ‘종교’라는 의미범주가 어떻게 달리 사용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오히려 그 동일성 내부에 존재하는 의미의 차별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부분유의어 사이의 동의성은 의미범주 전체가 아닌 의미범주 내부에 존재하는 동일

한 의미항목의 개수와 동일성의 비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 어휘의 의미범주를 구성하는 동의성 항목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동의성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은 ‘道’와 ‘教’가 나타내는 종교의 의미범주 내부에 존재하는 하위의 의미항목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왜 이들의 쓰임에 차별화를 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2. ‘道’와 ‘教’의 동의성 의미항목과 의미역

본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한자 ‘道’와 ‘教’는 각각 ‘길’과 ‘가르치다’를 첫 번째 표제어로 삼고 있어, 완전히 서로 다른 의미범주로 그 어떤 동의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언어생활에서 ‘道’와 ‘教’가 동의형태소로 사용된 예들로는 ‘종교의미’를 나타내는 ‘教会’, ‘教堂’, ‘佛教’, ‘道教’, ‘佛道’, ‘道士’, ‘傳道’, ‘会道门’¹⁾, ‘一贯道’ 등과 같은 어휘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道’와 ‘教’의 공통된 의미역에는 ‘종교’나 ‘사상’, 혹은 ‘일정한 교리를 가진 집단’ 등 좀 더 포괄적 범주에서의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전술한 어휘들이 ‘종교’라는 의미항목에서 동의형태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佛教’와 ‘佛道’가 불교를 지칭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道’와 ‘教’ 두 형태소를 동의성 형태소로 파악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두 형태소가 완전히 동일한 의미역을 지니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道’와 ‘教’에 대한 대비분석을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는 사전의미, 즉 사전의 의미항목을 통해서 두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범주에 대한 동의성 의미항목과 비동의성 의미항목에 대한 대비분석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먼저 ‘道’의 사전의미는 사전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²⁾ 의미항목이 가장 많이 나열된 인터넷 검색사전 『汉语词典』(汉典)에 보이는 ‘道’의 14가지 의미항목을 구분해서 살펴보자. 그 중, 첫 번째의 ‘路, 方向’은 ‘道’의 원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두 번째의 ‘法则, 规律’³⁾은 원형적 의미인 ‘원리’의 총화로 드러나고, 다시 네 번째의 “方法, 办法, 技术”은 ‘道’의 추상적 원리를 구체적 현상에 접목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의 “学术或宗教的思想体系”는 점점 내적 사상에서 ‘教(가르침)’의 행위와 종교적 행위로 가는 과정에 존재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에서 종교와 관련된 의미⁴⁾가 생성되어 ‘教’의 종교적 의미와 동

1) [명사] ‘会门(민간 종교 단체)’과 ‘道门(비밀 결사)’의 합칭. 비밀 결사의 성격을 띤 종교 단체. 종교적 색채를 띤 비밀 결사(指某些反动迷信组织).

2) 상무인서관의 『现代汉语词典』(1885)에서는 10가지 의미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터넷검색사전 『汉语词典』(汉典)에서는 14가지 의미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판된 고려대출판사의 『중한대사전』에서는 14개, 진명출판사의 『중한대사전』에서는 18개의 의미항목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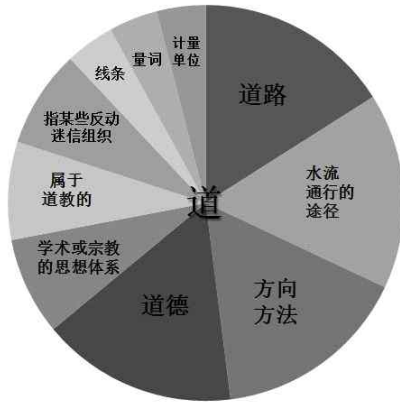
3) 첫 번째 표제어는 비교적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국어와 ‘길’과 동일한 의미의 ‘路, 方向, 途径’으로 해석되고 있다. ‘道路, 铁道’가 있으며, ‘志同道合’의 성어 등으로 예시를 담고 있다. 그 다음의 두 번째에서 네 번째 해석은 주로 추상적인 의미의 (指法则、规律: ~理, ~德, ~义, 得~多助, 失~寡助.)로 되어 있다.

4) 5. 指‘道家’(中国春秋战国时期的一个学派, 主要代表人物是老聃和庄周) 6. 指‘道教’(中国主要宗教之一, 创立于东汉): ~观(guàn), ~士, ~姑, ~行(háng)(僧道修行的功夫, 喻技能和本领). 7. 指某些反动迷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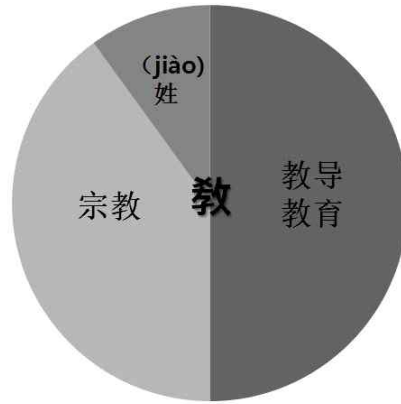
일 의미역을 형성하고 있다.

다시 ‘教’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教’는 4성(jiào)의 ‘指导, 训诲(가르치다, 깨닫게 하다)’등과 1성(jiāo)의 ‘传授(전하다)’의미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4성의 첫 번째 의미항목 ‘가르치다.’는 종교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여전히 포교나 선교활동 등에서 여전히 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宗教’라는 의미항목으로 ‘教士, 教主, 教皇, 教堂’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주요 고찰 대상이다.

이상의 사전 속 의미항목은 각기 그 사용범위에 따라 의미역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위에 언급한 14개의 의미항목 중에서 비교적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道’의 의미항목 10개⁵⁾와 ‘教’가 지닌 두 성조를 포함한 3가지 의미항목을 의미역과 연계해서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 道의 의미항과 의미역 -



- 教의 의미항과 의미역 -

위의 그림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질량불변의 법칙’ 아래에서, ‘道’와 ‘教’의 사전 속 의미항목과 어휘구성의 활용도에 따라 의미역을 나누어 본 것이다.⁶⁾ 즉 어휘구성의 활용도는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어나 한자 학습에서도 더 많이 언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组织：会~门，一贯~.)

- 5) 『现代汉语词典』은 행정구역의 의미와 동사기능의 ‘말하다’를 분리하여 명사기능만을 10개로 나누고 있다. 진명출판사의 『중한대사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전에서 이 두 영역을 합하며, 14개의 의미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 6) 그래프에 보이는 의미역의 대소(大小)는 『现代汉语词典』에서 ‘道’의 의미항목 10개와 ‘教’는 3개의 의미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사전에 수록된 ‘道’의 어휘 43개 중에서 길 10개, 종교 10개, 도덕 6개, 방법 6개, 동사 5개, 기타 5개 정도로 대략 구분해 볼 수 있었다. 또 ‘教’는 46개의 어휘가 있었는데, 그 중 종교 13개, 교육 29개, 기타 4개 정도로 대략 구분해 볼 수 있었다. 비록 많은 사전의 통계를 거쳐서 나온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 상용하는 어휘들의 특징을 통해 보면 유사한 비율이 나올 것이라고 사료된다.

3. 형태소 ‘道’와 ‘教’의 어휘구조 비교분석

우선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전의미에서 출발하여, 종교어휘를 구성하는 형태소 ‘道’와 ‘教’의 의미범주는 내적범주와 외적범주로 대비시켜 살펴볼 수 있다. 즉 ‘道’가 대부분 추상적인 내적범주를 가진 의미항목으로 구성되었다면, ‘教’는 내적범주인 ‘道’를 실천하는 과정으로써의 외적범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教’가 나타내는 ‘가르치다’는 두 사람 이상의 행위관계에서 온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만, 먼저 어순의 변화를 통한 ‘道教’(종교집단)과 ‘教道’(종교의 교리)를 통해 구분해 볼 수 있다. 또 동일한 후행형태소를 지닌 ‘道义’와 ‘教义’에서 ‘道义’의 ‘道’는 종교의 의미가 아니라, ‘道’의 원형의미 ‘길’의 파생인 ‘규칙, 사상, 법규’ 등의 의미이다.

그러면 다시 ‘道’가 ‘종교’의미로 사용된 형태소의 어휘구조를 살펴보자. 먼저 ‘道’가 선행형태소로 사용된 ‘道×’의 경우에는 ‘道家’ 및 ‘佛家’와 연관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道家’를 비롯하여 ‘道经’, ‘道馆’, ‘道僧’, ‘道心’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道’가 후행형태소로 사용된 ‘×道’에서는 불교의 용어에 사용되는 ‘無間道’, ‘無漏道’, ‘緣行道’, ‘有漏道’, ‘尼入道’, ‘解脫道’, ‘加行道’ 및 ‘皆成佛道’⁷⁾ 등이 있는데, ‘道’가리키는 것은 종교 자체라기보다 종교의 ‘법도(法度)’ 혹은 ‘교리(教理)’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教’ 또한 모두 행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교법(教法)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한자를 동의성의 각도에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遺教’는 불교에서 부처나 조사(祖師)가 남긴 교법(教法)을 의미하며, 漸教는 오랫동안 수행하여 점차 깨달음에 이르는 교법(教法)을 의미한다. 즉 ‘教’가 나타내는 것은 행함을 통해 얻은 진리 및 교리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道+X’와 ‘教+X’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现代汉语词典』(商务, 1985)에는 10개의 ‘道+X’구성의 어휘와 10개의 ‘教+X’구성의 어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사한 범주를 가진 어휘를 대비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道+X’	의미범주	‘教+X’	의미범주	비고
道场	스님이나 도사가 법사를 행하는 장소	教堂	기독교에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장소	
道姑	여자 도사	教主	종교의 창시자	
道观	도교의 사당(廟)	教会	천주교, 东正教, 新教 등 교파의 조직	
道行(héng)	스님이나 도사의 법력(도력)	教派	특정 종교 내부의 파벌	
道教	도교(종교의 일종)	教条	종교상의 신조(교회가 공인한 교의)	

7) [불교] 누구든지 삼생(三生)을 통하여 불도를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법화경에 있는 구절이다.

道门	一貫道나 先天道 등의 종교단체	教门	이슬람교	
道袍	도사들이 입는 옷	教义	종교가 신봉하는 도리(교리)	
道人	도사의 존칭, 고대의 불교도의 도인, 절의 잡일을 하는 사람	教徒	종교를 믿은 교인, 신도, 신자	
道士	도교의 교도	教士	기독교의 선교사	'士'의 계급이 약간 다름
道藏	도교경전의 집대성	教廷	천주교의 최고 통치기관	

위의 예들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道'의 동양과 '教'의 서양이 대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종교의 행사를 치르는 곳으로 '道場'과 '教堂', 또 종교의 신자로서 선교나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道士'와 '教士'의 관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자는 동양적 종교인 도교와 불교의 포교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教士'는 전문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목회자를 의미한다. 또 '道人'과 '教徒'가 상호 대비된다.

다시 'X+道'와 'X+教'의 구성을 하고 있는 어휘는 매우 많은데, 그 중 '종교'의 의미와 관련된 어휘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자.

우선 'X+道'에서 '道'가 나타내는 의미는 종교 그 자체보다는 '敎道'처럼 특정 종교가 가지는 교리를 의미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불교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불교에서 사용하는 어휘로는 '佛道' 혹은 '玄道'는 가장 대표적인 부처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어휘이며, '中道'는 불교의 기본교리로, 아함경, 중관론, 천태종에서 정관(正觀), 무소득, 중제(中諦)의 도리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天道'(중생들이 윤회하는 길), '求道'(진리나 종교의 깨달음의 경지), '修道'(삼도의 둘째단계로 번뇌의 속박을 벗어나려고 수행하는 단계), '人道'와 '覺道', 見道(삼도의 첫째 단계), '苦道', '灭道', '法道', '成道', '圣道', 禅道(선도 혹은 종파), 业道, 悟道, 证道, 八正道, 无间道, 无漏道, 缘行道, 解脱道, 加行道, 皆成佛道 등이 있다.

다만 '道'가 '教'와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는 것으로는 다른 종교(外道)와 구별하여 불교를 부르는 용어인 '内道'는 '内教'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 불교 이외의 용어로는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가리키는 '传道'가 있고, 서방에서 유입된 종교를 의미한 '西道'(천도교에서 천주교를 가리킨다)가 있을 뿐이다. 또 '교리'가 아닌 직업이나 사람 등으로 파생된 것으로는 '毛道'는 범부의 삭발을 관장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倡(唱)道는 '창도사'로서 법회에서 주석을 맡아보는 승려를 가리킨다. 이 외에도, '魔道'는 악마의 세계를 가리키고, '尼入道'는 여자신도가 머리를 깎고 불도에 귀의하는 일을 가리킨다.

'X+教'에서는 우선 '道'를 원리로 하는 종교의 '교리'나 '법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불교에서도 대부분 '교리'나 '법도'를 가리키고 있다. 다만 외부에서 유입된 종교에서는 교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종교명'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内教'와 대별되는 '外教'는 없는 것으로 보아, '内教' 또한 '内道' 사이에도 약간의 구별이 있지 않을까 한다.⁸⁾

8) 이상은 자료수집의 편리를 위해 『汉韩大字典』(民众书馆, 1987)의 어휘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현대한어사전』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기타	비고
'X+道'	中道, 天道, 求道, 修道, 佛道, 人道(인간도, 삼선도의 하나), 鬼道, 內道, 覺道, 見道, 苦道, 灭道, 法道, 成道, 圣道, 禅道, 胜道, 业道, 外道, 悟道, 证道, 毛道, 魔道, 倡(唱)道, 办道, 玄道, 尼入道, 八正道, 无间道, 无漏道, 有漏道, 缘行道, 解脱道, 加行道, 皆成佛道	西道, 传道		教道(종교적 도리), 东道(대종교), 外道(불교 이외의 종교),
'X+教'	佛道, 內教, 密教(秘教), 禅教(선종과 교종), 判教, 开教*, 经教(교리), 空教, 广教, 权教, 大教, 顿教, 辅教(계급), 别教, 事教, 象教, 实教, 言教, 圆教, 音教, 理教, 藏教, 通教, 偏教(权教), 八教, 行教, 显教, 弘教	基督教, 主教(司教), 入教, 景教(Nestorianism), 古教(모세교), 公教, 旧教, 东教(그리스정교회), 奉教, 西教, 正教, 真教	儒教(孔教), 道教, 三教(유, 불, 도), 司教(대종교의 교직)正教(대종교), 知教(대종교), 红教(라마교 구파), 黄教(라마교 신파)	宗教, 宣教, 殉教, 国教, 改教(改宗), 开教, 巫教, 民教, 仙教, 正教, 黜教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X+道'와 'X+教'의 분류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용어가 많은데, 아마도 불교에서 자신들의 교리의 중심을 '道'로 보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타 종교 또한 불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인들의 사유를 통해 번역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와 천주교, 이슬람 등 중국의 외부에서 유입된 종교에서는 'X+教'만 쓰일 뿐, 'X+道'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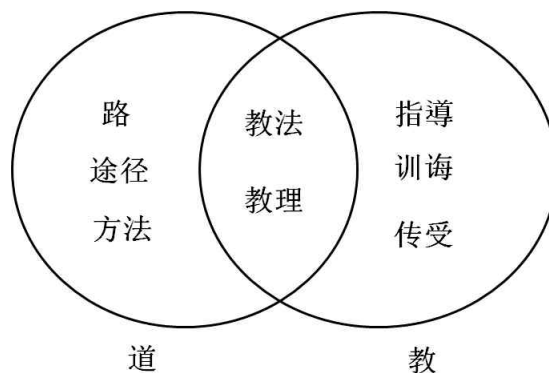
4. ‘道’와 ‘教’의 의미범주의 도상화 분석

앞 절의 사전의미에 근거하여 ‘道’와 ‘教’의 도상화 과정을 통해, ‘종교’라는 의미범주 내부에 존재하는 의미항의 동의성과 차별성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우선 ‘道’와 ‘教’은 자체적으로는 유의어가 아니기 때문에, 도상화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道’와 유의어인 ‘路’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접근해 보기로 한다.

단순히 표제어의 관계를 보더라도 道와 路를 동의어의 관점에서 ‘길(도로)’의 개념으로 합쳐서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두 한자의 의미범주에는 ‘추상’과 ‘구체’의 성질범주가 대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음절 이상의 어휘를 구성함에 있어, ‘道’에는 방법, 규칙 등의 내재적 추상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路’는 시각적으로 도식화된 ‘길’로 외형적 구체성으로 드러난다. 즉 의식 속에 숨어있는 추상의 ‘道’와 완전히 외재적으로 드러나 있는 ‘路’는 ‘내외도식(안팎도식)’을 통해 두 한자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어에서 ‘道’와 ‘路’ 모두 두 어휘가 결합된 ‘道路’ 혹은 ‘길’로 파악함으로써, 두 한자를 모두 어휘구조의 초점성분인 ‘路’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에서는 ‘道路’가 결합되어 단순히 ‘길’이란 의미로 번역함으로써, 한국어에서 ‘道’와 ‘路’, 혹은 ‘途’의 의미항목까지 함유한 ‘길’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추상성을 지닌 ‘道’를 가지고 ‘路’를 인식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선형성을 지닌 ‘路’를 가지고는 ‘道’가 가진 추상화된 길을 표현할 수는 없다.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각각의 성분이 형태소가 되어 새로운 어휘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순관계이다. 우선 ‘추상(원리)+구체(형태)’의 결합구조인 ‘道路’는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구조인 ‘路道’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일정한 이동이 드러나는 ‘路程’과 ‘*道程’의 관계나 직접적인 선을 기술하는 ‘路线’과 ‘?道线’⁹⁾의 경우에도 그 결합관계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道’와 ‘教’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적’과 ‘동적’의 상태범주, 그리고 기능적 특징을 통한 시간범주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 ‘道’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宗教’나 ‘교육’과 관련하여 ‘教’의 의미범주와 유사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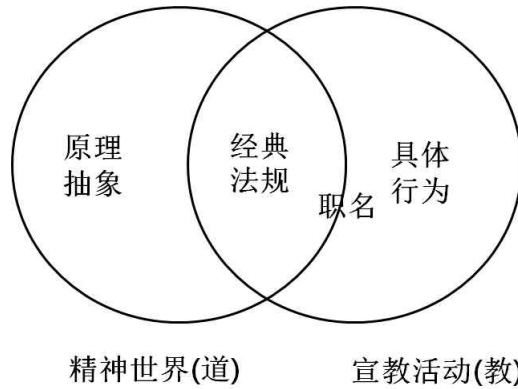


만약 우리가 ‘道’가 나타내는 ‘길’을 수학적인 도식을 통해 형상화 할 수 있다면, 먼저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형의 선()에서부터 ‘점선(….)’, 그리고 완전히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실선(—)’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道义’의 원형적 원리에서 ‘道德’, ‘道理’, ‘道学’ 등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제도화된 사회적 규범이 있으며, 그리고 ‘路’와 동일시되는 의미범주로 ‘铅笔道儿’이나 양사로서의 ‘道’, 그리고 행정구역에서 사용되는 ‘道’ 등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외적범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가르침’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 인식되는 ‘教’의 의미범주는 ‘指導’, ‘传授’ 등의 구체적 행위에서 ‘教法’, ‘教理’ 등과 같이 제도화된 종교적 규범으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

9) 물론 车道线, 横道线, 抢道线과 같이 ‘AB+C’의 경우에는 성립하기도 한다.

10) 범주는 카테고리의 번역어이며, 카테고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유래한다. 그것은 존재자에 관한 진술의 보편적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는 범주에 실체, 양, (성)질, 관계, 장소, 시간, 위치, 상태, 능동, 수동의 10개가 있다고 했다. 범주 [範疇, Kategorie] (칸트사전, 2009. 10. 1. 도서출판 b) 하지만, 범주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



위의 도표는 ‘道’와 ‘教’가 차별화가 나타나는 근원적인 의미항목과 공통화를 추구하는 부분의 의미항목을 분모의 것은 바로 ‘길, 방법, 경로 등’은 내재적 추상성에 근거한 무형범주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며, 반대로 ‘教’가 나타내는 ‘가르침, 전수’ 등의 행위성에 근거한 외재적 선형범주의 실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의미범주에서는 두 어휘 사이에 그 어떠한 연관성 없다. 다시 말해, 문자의 탄생배경인 인식의 근원에서도 ‘道’가 정신세계를 그리는데 비해, ‘教’가 나타내는 ‘가르치다’는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통한 동적(외적) 범주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호간의 차이를 보인다. 다만 두 어휘가 ‘종교의미’에서 만나게 된 배경은 이러한 ‘道’와 ‘教’의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의 범주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에 근거하여, ‘원리원칙-실천과정’, ‘정적상태-동적행위’ 등의 관계를 통해 도상화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어

우리는 언어교제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유의어에 대해 동일한 의미범주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많지만, 정작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기호 중에서 정작 동일한 것을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서로 다른 유의한자어의 의미범주 사이에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들 한자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로서 또 다른 어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본문에서 ‘종교의미’로 사용되는 한자 ‘道’와 ‘教’가 형태소로 활용되는 다양한 어휘에 대한 하위범주의 의미항목을 고찰해 봄으로써, ‘道’와 ‘教’가 어휘를 구성하는데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먼저 ‘道’는 본래 원형의미가 가지고 있던 추상적인 원리의 표현으로 인해, ‘종교’의미를 나타낼 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의미로 전이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教’ 또한 비록 ‘教理’나 ‘教法’ 등으로 표현될 때는 ‘道’의 의미범주에 근접하고 있지만, 여전

히 추상적 원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행위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종교인들의 일상적인 종교 활동에서 ‘宣教’와 ‘传道’가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심지어 반대로 해석되는 사람들로 있었다. 하지만, 원형의미를 근거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传道’는 목회자가 교의를 설법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宣教’는 교세의 확장과 관련된 교도(教徒)들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반증으로는, 불교에서도 또한 불교 사상의 전파나 교세 확장을 ‘布教’라고 하지, ‘*布道’라고 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의미범주의 차이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고찰한 또 하나의 사실은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道’가 ‘道家’와 ‘道教’의 어휘보다도, ‘佛教’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휘구성의 각도에서 볼 때, 단독으로 사용된 ‘道’를 제외한 이음절 이상의 어휘에서 형태소로 기능하는 어휘들은 대부분 불교 용어의 번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오히려 도교는 신선사상과 결부되어 ‘神’을 형태소로 취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인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중국인의 사유방식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참고문헌】

-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의미』, 태학사, 2005.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혼성이론』, 박이정, 2013.
 Y. Tsuji 편, 임지룡 등역, 『인지언어학키워드사전』, 한국문화사, 2004.
 卢福波 편저, 오문의 등역, 『중국어유의어사전』, 송산출판사, 2005.
 牧野成一 저, 安增煥 등역, 『공간의 언어문화학』, 제이앤씨, 2001.
 卢福波 편저, 오문의 등역, 『시간과 공간의 철학』, 서광사, 1986.
 Vyvyan Evans, 임지룡 등역, 『인지언어학적 어휘의미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12.
 Günter Radden·René Dirven, 임지룡 등역, 『인지언어학적 어휘의미론』, 박이정, 2009.
 康寔镇 편, 『中韓大字典』, 진명출판사, 1993.
 고대민족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집실 편, 『中韓大字典』, 고려대학교 민족연구소, 1995.
 민중서관편집국, 이상은 감수, 『漢韓大字典』, 민중서관, 1978.
 중국사회과학원 언어편집실 주편,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1995.
<http://www.zdic.net/z/25/js/9053.htm>
<http://www.zdic.net/z/1a/js/654E.htm>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宗教, 道, 教, 语素, 类义词		
Key Words	영문	Religion, Dao(道), Jiao(教), Morpheme, Synonym		
<div>Differentiation of 'religion' consent Category '道' and '教' review</div> <div>Kim, Jeong-Pil</div> <p>We assume that the language has the same meaning for many synonyms. Howeve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none of the many language symbols we use have the same meaning. Although we can not find any difference between the meaning categories of different Chinese characters, we can see the difference in the process of Chinese character morphology forming another vocabulary.</p> <p>In the paper, we have found that '道' and '教' have a certain boundary in constructing vocabulary by examining various vocabularies used as morphemes. First, it can be seen that '道' is not transferred into concrete meaning when expressing 'religion' meaning because of the expression of abstract principle originally possessed by circular meaning. Although '教' is also close to the '道' semantic category when expressed as '教理' or '教法', it still does not approach the abstract principle and appears to be associated with concrete actions.</p> <p>However, when interpreting on the basis of the circular meaning, '传道' is based on the pastor 's teaching the doctrine, and '宣教' should be understood as the concrete activities of the religionist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the church. Another falsification is that in Buddhism, the propagation or expansion of Buddhist thought is called 'A', but not in 'B'.</p> <p>In other words, vocabularies that function morphemically in vocabulary beyond a single word, except 'a' which is used singly in terms of lexical composition, are mostly related to the translation of Buddhist terms, and Taoism is associated with fresh ideas and is taken as a morpheme.</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정필 / 金正必 / Kim, Jeong-Pil		
	소 속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Em@il	jpkim21@gn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5월 25일	심 사 일	2018년 05월 30일
	수 정 일	2018년 0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2일